

팍팍한 2030...보험·연금 가입 '최저'

보험 계약 전년비 15만건 감소...해지도 4만3천여건 늘어 개인연금 가입 18% 4년새 2.1%P↓...하락폭 일반의 5배

이른바 취준생(취업준비 학생)인 A(여·27)씨는 대학 2학년 때부터 7년간을 들어온 보험(민간보험)을 최근 해약했다. 환급금 손해를 많이 봤지만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면 부모님 대신 스스로 내려고 했지만 취직이 늦어지고 생활비가 급한 관계로 당장 써야할 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A씨처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보험을 해약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불황 여파로 지난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신계약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15만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몸집 불리기보다 우량 고객 확보에 집중한다. 20~30대 젊은 층의 이탈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5곳의 1~6월 신계약 건(일반계약 기준)은 791만331건으로 작년 상반기(806만3615건)보다 15만3284건(1.9%) 감소했다. 보험료도 187조7026억원에서 173조1762억원으로 15조가량 줄었다. 계약은 일반계약 기준으로 퇴직연금 등의 특별계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지만 문제는

보유계약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두 달 이상 못내 효력상실해지로 분류된 계약은 314만3207건으로 1.4%(4만3022건) 늘었다.

25개 보험사 중 신계약이 늘어난 곳은 15곳 이상이었지만 해지건이 감소한 생보사는 한화생명과 ABL생명과 AIA생명 등 6곳에 그쳤다.

이러한 보험 가입 감소세는 경제 형편이 어려워진 젊은층이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료를 보면 20~30대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18.1%로 2014년과 비교해 2.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 가입률이 같은 기간 0.4%포인트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하락폭이 5배가량 크다.

20대 가입률은 2014년 12.3%에서 지난해 10.3%로 2%포인트나 떨어졌고 30대도 같은 기간 27%에서 25.1%로 2%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30대의 가입률은 40대(29.8%), 50대(26.5%)에 미치지 못했다. 2014년에는 30대 가입률이 50대 높았으나 2년 사이 가입률이 역전됐다.

이에 반해 60대와 70대 이상 가입률은 2년 새 1.7%포인트, 0.8%포인트 높아졌고 50대도 0.6%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취업난 등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개인보험 가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며 "보험사들도 새 회계기준에 대비해 계약을 무력하고 늘리기보다 우량 자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4.32 (-6.08)	↑ 금리 (국고채 3년) 1.83% (+0.05)
↑ 코스닥 642.40 (+0.36)	↑ 환율 (USD) 1136.80원 (+5.00)



광주은행, 수도권 31번째 전략점포 개점

동탄2신도시 동탄지점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25일 김한 은행장과 임직원, 그리고 외빈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탄2신도시에 동탄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이 31번째 전략점포를 개점한 동탄2신도시는 12만 세대, 30만 명 규모의 특별계획도시로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세대가 입주 완료 및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예정인 금융 수요가 풍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이다.

현재 광주은행은 수도권에 19개 지점, 19개 지점의 경우 시중은행과 차별화를 위해 공동지역보다는 소매금융을 확대할 수 있는 주거밀집 지역에 점포를 내고, 시중은행이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전략점포를 통한 수도권 진출을 확대한 광주은행은 2017년 8월 말 기준 수도권 여·수신 잔액 합계가 11조 9000억원으로 2015년말 6조1000억원 대비 2배 성장했으며, 여·수신 잔액 중 32%인 수도권 비중을 앞으로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한 광주은행장은 "수도권 진출은 광주은행의 미래 성장엔진을 확보하는 차원이며, 수도권에 풍부한 유동자금을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공급해 소통을 크게 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앞장서는 등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대·기아차, 사드 장벽 신차로 넘는다

소형 세단 '페가스'·'루이나', SUV '新 ix35' 선보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 등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현대·기아차가 최근 신형 모델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을 노리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다양한 크기의 '중국 시장 맞춤형'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SUV) 등을 내놓고 현지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를 넓혀주면, 수요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기아차(현대차 동평웨딩기아)는 26일 중국 시장에 소형 세단 '페가스'를 출시했다. 페가스는 같은 소형 세단 'K2'보다 한 단계 아래 차급으로, 경제성과 실용성, 디자인을 앞세워 중국 소비자의 '첫 세단' 시장을 노리고 있다.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인 페가스의 특징은 ▲역동적 외관 ▲우수한 연비 ▲넓은 실내 적재 공간(475ℓ) ▲안전사양 등이다.

신형 포르테는 '경제성 좋은 패밀리 카'를 찾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넓은 외관·실내공간, 승차감·시트, 경쟁차 이상의 연비 등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

현대차(현대차 베이징현대)는 지난 19일 중국에서 '올 뉴 루이나(영문명 레이나)'를 내놨다.

2010년 중국 시장에 첫선을 보인 소형 세단 '루이나'의 신형 모델로, 이달 초 가동에 들어간 베이징현대의 총칭(重慶) 공장이 생산한 첫 양산 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형 루이나에 이어 현대차는 연말까지 '중국시장 전략형' SUV로서 '신형 ix35(현대차명 '新一代ix35')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된 '신형 ix35'는 누적판매 76만대를 기록 중인 기존 ix35를 대체하는 모델로 '가족 중심의 실용적 SUV' 수요층을 공략한다. /김대성기자 bigkim@

“추석 성수품, 질 좋고 저렴한 우리 농산물 사세요” 광주 농·축협 직거래 장터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와 광주지방검찰청(지검장 양부남)은 26일 광주 검찰청 앞 마당에서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다.

광주지역 14개 지역농협과 광주축협이 참여한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명절과일선물세트와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등이 시중가보다 최고 20%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장터를 찾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장터에서는 추석맞이 떡메치기행사, 인절미 시식회 행사,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한우불고기 시식회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되어 장터의 분위기를 더했다.

농협광주본부와 광주지방검찰청은 매년 명절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어려운 우리 지역 농업·농촌을 위해 도움이 관심을 쏟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26일 광주 검찰청 앞 마당에서 열린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참가자들이 인절미를 시식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제공>

호남권 제조업 절반 “내년 채용 늘린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중 제조업체들의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채용계획이 있고 채용규모는 올해보다 확대하겠다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14일~9월 4일까지 호남권 제조업체 3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조사에 응답한 업체의 48.4%는 내년에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채용계획이 없는 업체(미정 포함·51.6%)와 비슷한 수치다.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 중 채용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53.3%로 '축소 계획'을 밝힌 업체(6.7%)보다 높았다.

올해보다 채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 중 37.5%는 '10% 이상'을 선택했다. 또 37.5%는 '5~10% 증가'를, 이어 25.0%는 '5% 이하'를 각각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5% 이상' 증가를 계획하는 업체 비중이 3분의 2에 달했다.

반면 줄일 예정인 업체 대부분은 '5%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IT와 석유화학·정제 등이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음료와 기계장비, 자동차 등은 채용 계획이 없는 업체가 과반을 초과했다.

IT의 경우 채용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축소를 계획한 업체보다 훨씬 많아 올해 반도체 등 정보통신 분야의 실적 호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세관 면세 초과물품 단속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추석절 황금연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은 현재보다 약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하여는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품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시공단계-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반입시공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한국방수시험연구원 공사 제2008-24호에 의거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인자 떨어지지 않는 질질 동결성형 합성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터너디자이너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찢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혜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